

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으로 ‘나주배’ 경쟁력 지킨다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나주시는 지난 28일 배 산업의 현안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배 육성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나주배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 위함이다.

이번 협의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주배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배 생산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국립원에특작과 학원 배연구센터, 나주배원에농업협동조합,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APC), 나주시 등 배 산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 실무진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배 산업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저온과 고온 등 이상기상 대응 방안, 시장 인증 품질보증제 추

진, 농가 컨설팅 및 수확기 판단 운영, 연구 실증사업 추진 방향 등 분야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유통 경쟁력 강화, 농

가 소득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실제로 지난 2024년에는 지속된 폭염과 강한 일사로 인해 일소과와 밀증상 등 고온 장애가 발생해 피해가 컸으며 지난해에는 개화기 저온으로 꽃눈이 고사하는 등 저온 피해가 이어져 배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꽃

가루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과수 화상병, 흑성병 등 주요 병해충 대응, 조기 낙엽 등 생육기와 수확기 생리장애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형남열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주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지난해에 진행한배 육성관련기관실무협의회 모습.

경북도, 농작물 병해충 현장 진단 돕는다

진단·분석·처방 사례 모은 책자 발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물의 문제 병해충 등 민원에 대한 진단과 대처방안 제시 사례를 모은 ‘농업현장 문제해결! 2025 농작물 병해충 민원 진단 사례’ 책자 1,000부를 발간해 23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관계기관, 농업인들에게 배포한다.

지난해 도내 농업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농작물 병해충 진단 의뢰 민원은 모두 122건으로 채소류 58건, 과서류 52건, 식량작물 9건, 기타 3건 등이었다.

피해 원인별로는 곰팡이에 의한 피해 35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29건, 해충 11건, 세균병 4건, 약해 6건, 이상기상 또는 토양 환경에 의한 피해가 37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 발생 증가와 이에 따른 바이러스 전염 촉진으로 토마토잎말림황화 바이러스(TYLCV) 진단 빈도가 높았고, 벼 깨씨무늬병 다발생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위 분석 결과에서 병해충 주요 진단 사

례 59건(채소 29건, 과수 21건, 식량작물 등 9건)을 엄선해 농업인과 관계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 방법과 대응책을 제시했으며, 농업인과 관련 기관의 교육 및 기술 지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정기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기후변화와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속한 병해충 정밀진단과 대처방안 제공으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경숙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아산시, 농산물 가공 교육 기초과정 본격 운영

맞춤형 교육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 창업에 희망하는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 가공 기초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 가공 농가와 초기 가공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 산업 및 소비 동향 △농산물 가공 원가 분석 △현장 위생·안전관리 △식 품표시 및 포장 기준 △가공 창업 인허가 절차 등 가공 창업에 필수적인 기초이론 교육과 함께, △참기름 △매주스 △탈기잼 △살가루 등 실제 가공 품목을 활용한 현장 견학 교육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농산물

가공 창업에 희망하는 농업인과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에 주민등록과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우선 선발되며,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 접수로 선정된다. 교육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제품 개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쌀가루분쇄 실습 교육 모습

영천시, 아열대작물 창업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기본·심화 과정 운영...온실 활용 현장실습

영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신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아열대작물 창업 기본·심화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아열대작물은 시설 구축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재배 기술을 완벽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 이에 영천시는 막연한 지원보다는, 교육생 스스로가 현장에서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입문자를 위한 기본과

정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총 20회, 9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북안면에 조성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활용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즉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 구축과 환경제어 기술, 선진농가 현장 견학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관내 거주자 20명과 관외 거주자 1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은 실제 창업 전 최종 점검 단계로, 선진농가와

교육생이 1:1로 매칭돼 밀착형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2월 6일까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아열대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생들이 아열대 스마트팜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해 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역량을 쌓고,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고창군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고창군이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45농가 54ha)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작업자 이동과 농작업 도구, 묘목, 곤충, 비·바람에 의해 퍼진다. 감염될 경우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마르며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고창군은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은 개화기 전·후를 중심으로 ▲농작업 전·후 작업도구 철저히 소독 ▲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등록된 농약 살포(개화 전 1회 + 개화기 2회) ▲외부 인력·장비 출입 최소화 ▲과수화상병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의심 증상 발견 시 즉각 신고 등 핵심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

다. 특히 전정 가위, 톱 등 작업 도구는 과원 이동 시마다 반드시 소독하고, 타 지역 과원 방문 후에는 신발과 작업복을 세척·소독해




▲ 과수화상병 예방카드뉴스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에서는 과수의 꽃, 잎, 가지 등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체 판단으로 제거하지 말고 즉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겨울철 껴안 제거와 감염 의심주 제거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며 “농작업 도구 소독과 작업자 이동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화상병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앞으로도 과수화상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대상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과수 종자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 필수

과수 종자(묘목)를 수입하려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정 종자산업법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시행일 2023.12.28.)



신고대상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과수 종자(묘목)

신고내용 수입 종자의 작물명과 학명, 품종 명칭, 용도, 수량,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등
첨부서류 : 신고품종 사진 또는 카탈로그, (식물검역대상이라면) 식물검역 합격 증명 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대리인 신고시) 대리권 증명서류

증명서발급 종자수입 신고서를 받으면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발급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처 **농작물**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www.seednet.go.kr) 

산림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fsv.forest.go.kr) 